

## 교환학생 수학보고서

### 1. 기본정보

학과	영미학과	이름	이XX
파견국가	미국	파견도시	Minnesota (Saint Paul)
파견대학	Concordia Saint Paul University	파견기간	22.08~23.05 (2학기)
귀국여부	귀국함		

### 2. 파견대학 및 수업 전반 사항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p>학교 근처에 타켓이 있어서 걸어서 10분이면 도착합니다. 이것이 굉장한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차가 없으면 다니기 매우 불편한데 여기 학교는 카페나 마트 등 도보로 이동 할 수 있게 주변에 시설들이 다양합니다. 엄청 큰 도시는 아니지만 도심 속에 있을 것 다 있는 동네입니다. 심지어 공항도 매우 가깝습니다.</p> <p>콘코디아 대학교는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메인 건물로 다 이어져 있는 구조로써 건물 안에서 어디로든지 이동이 가능합니다. 대신 기숙사 빌딩은 따로 있습니다. 학교 자체는 규모가 작아 친구들을 쉽게 만날 수 있고 두학기 정도 다니면 학교에 누구누구 있는지 다 알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것 또한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외국인 친구들과 친해지고 싶다는 목적이 있다면 어떤 친구를 사귀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학생들과 가까이 지낼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운동선수나 인턴 등으로 많은 학생들이 바쁘기 때문에 교환학생에 대해 관심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학기마다 수업마다 먼저 적극적으로 다가간다면 모두가 환영해주면서 친절하게 관계를 이어 나갈 수 있습니다.</p>
2018-2학기 수업	<p>저는 경영학과를 복수전공하고 있기 때문에 가을학기에 복전 수업 3과목을 들었습니다.</p> <p><b>Global Management</b> : 글로벌한 시대에 맞춰 전반적인 추세나 다른 나라의 정책, 규율, 문화, 관습 등 다양한 방면으로 비즈니스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배우는 과목입니다. 내용이 어렵지 않으며 기본적인 베이스들로 전체적인 흐름을 배우는 과목이고 시험과 발표가 있습니다. 수업시간에 배우는 내용 그대로 시험에 나오고 발표는 개인, 팀 총 2번의 발표가 있습니다.</p>

	<p><b>Managing talent change &amp; negotiation</b> : 미국의 노동법, 규율에 대한 배경지식을 다루기도 해서 조금 어려웠던 과목입니다. 하지만 비즈니스를 하면서 상대방과 어떤식으로 조율하고 협상을 해야하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배경지식을 배우는 과목입니다. 교수님마다 다르겠지만 실제와 비슷한 환경을 만들어 놓고 교수님들을 섭외하여 직업 인터뷰나, 사업 아이디어를 두고 협상을 하는 시뮬레이션 수업도 합니다. 같은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팀을 이루어 이러한 시뮬레이션을 어떻게 준비해야할지 구상하고 이벤트를 만드는 작업을 수업 시간에 진행합니다. 시험은 2번있고, 위에서 말했듯이, 각 시뮬레이션 수업에서 평가된 점수가 최종 점수에 반영됩니다. 어렵지만 사회에 나가기 전 모의 직업 인터뷰도 해볼 수 있고, 협상을 통해 상대방과 조율을 해보는 체험도 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었던 수업이었습니다.</p> <p><b>Consumer Behavior</b> 이 과목의 교수님은 활동을 좋아하십니다. 매시간 프린트물을 나눠 주시고 수업시간동안 나눠 주신 종이에 필기와 토론의 이야기를 적적 제출하는 것이 출석입니다.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듣는 것을 좋아하시고 적극적으로 칭찬해주십니다. 어렵지 않고 교수님이 너무 좋은 수업입니다. 예시를 많이 보여주시고 실제와 가장 비슷한 이야기들 위주로 이론들을 설명해주시기 때문에 많은 과제가 있어도 어렵진 않습니다. 다만 매주 팝퀴즈를 봅니다. 발표는 1번이고 레포트를 4번정도 작성해야 합니다. 대신 시험은 따로 없습니다.</p>
2019-1학기 수업	<p><b>Advertising and Promotions</b> : 이 수업은 광고제작에 흥미가 있는 학생이라면 듣는 것을 추천합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있으면 더욱 재미있을 수업이지만 아이디어나 무언가를 창작해내는 실력이 부족하다면 지루하고 어려운 수업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론을 배운 후에 시험대신 2-3가지의 프로젝트를 자신의 창작물로 제작을 하고 광고를 어떻게 할지 구상하여 발표하는 수업입니다. 2-3주에 걸쳐 진행되는 프로젝트들도 있습니다. 사업 아이템을 구상하여 발표하는 것이 최종 프로젝트인데 이 과정들이 매우 길고 꼼꼼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상상력과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많은 학생들에게 추천하는 수업입니다.</p> <p><b>Introduction to Art</b> : 교양 수업으로 선택한 수업입니다. 미술의 전반적인 기초 지식을 배우는 수업입니다. 내용은 어렵지 않고 중간중간 만들기 시간이 있습니다. 약간 유치하지만 가볍게 듣기 좋은 수업입니다. 시험은 없지만 2-3번 미술관에 가서 작품을 본 후 레포트를 제출해야하고 2-3번</p>

	<p>자신의 프로젝트를 만들어 발표해야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1학년들이 듣는 수업이라 어렵지 않습니다.</p> <p><b>Dance for Musical Theatre</b> : 뮤지컬댄스에 대해 배우는 수업이 아닙니다. 뮤지컬 댄스를 배우고 무대에 올라가서 공연을 하는 것 까지가 이 수업에 최종 목표입니다. 탭댄스와 재즈, 발레 기본동작들을 배우고 조별로 나누어 뮤지컬 넘버에 맞는 춤을 배웁니다. 2번 정도 팝퀴즈가 있고 팀별로 자신의 팀이 고른 뮤지컬에 대해 발표를 해야합니다. 기말 때는 쇼케이스에 올라가 무대를 해야 합니다. 전형적인 미국의 교양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p> <p><b>Photography 1</b> : 필름 카메라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배우는 수업으로써 직접 카메라를 만져보고 다크룸에 들어가 현상까지 해볼 수 있는 수업입니다. 한국에서 쉽게 할 수 없는 수업인 만큼 새로운 경험을 해보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또 사진이나 카메라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 역시 매우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암실에 들어가 현상하는 과정을 직접 해본다는 것이 매우 신기했고 결과물이 눈에 보이는 수업으로써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시험은 없지만 4-5번 정도의 가벼운 에세이와 파이널 필름작업까지 완성하셔야 점수가 나옵니다.</p>
<p>프로그램 운영</p>	<p><i>외국인 학생을 위한 지원현황</i> 예) 오리엔테이션, 교환학생 참여 프로그램, 담당부서, 담당자명, 상담 프로그램 등</p> <p>-Concordia university는 공항하고 상대적으로 가까운 위치에 있기 때문에 공항 픽업 서비스가 없습니다. 이미 아는 친구가 있으면 부탁하거나 우버를 이용해야합니다.</p> <p>-오리엔테이션은 온라인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변경된 것인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그렇게 한건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오티는 "교환학생"만을 위한 오티가 아닌 유학생 전체를 위한 것으로서 학비나 전반적인 생활 등 유학생에 초점이 맞춰서 진행된다는 점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교환학생들이 궁금해할만한 점들은 concordia 국제교류처 담당자 분께 직접 질문하거나 제가 쓰는 이러한 리뷰들을 보고 답을 찾는 방향이 더 빠르게 해결 할 수 있습니다.</p> <p>-교환학생만을 위한 동아리는 없습니다. 여기 학교는 운동하는 선수 학생들이 많고 대부분 운동 동아리거나 개인적으로 인턴이나 일을 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친구들을 사귀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 하는 행사들이 매우 많고 자주 열기 때문에 거기서 새로운</p>

	<p>친구들을 만날 수 있고 친구의 친구가 소개 시켜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p> <p>학교에 적응을 하기 힘든 국제학생들은 International student service(ISS)에 찾아가 Anthony선생님이나 Tiffany선생님을 찾아가시면 많은 정보와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p>
--	--

###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p>현지 기후 및 유의점</p> <p>미네소타인만큼 겨울도 일찍 시작합니다. 10월 말 정도에 눈이 오기 시작하고 5월 초까지 눈이 옵니다. 겨울에는 매우 춥습니다. 그냥 추운 겨울이라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정말 겨울에는 -30도까지 내려가기 때문에 숨쉴 때 마다 코가 얼기도 합니다. 여름 옷을 최소화 하시고 간절기 옷과 히트텍과 같은 여러겹 겹쳐 입을 수 있는 옷들로 많이 준비해 가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눈이 많이 와서 휴교할 때도 있습니다. 또 눈이 많이 오기 때문에 패딩이나 겉옷이 많이 더러워지기도 해서 패딩은 2-3벌 정도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 드리고 부츠는 가서 사셔도 됩니다. 미네소타에서만 신고 버릴 수 있는 방한 용품들로 챙겨오세요. 무엇보다 전기장판 없으면 안됩니다. 히터가 고장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밖은 -20도인데 히터에서 찬바람 나오면 방이 정말 춥습니다. 추위를 많이 타시는 분들일수록 방한용품을 무조건적으로 많이 챙기시길 바랍니다.</p>
안전	<p>현지 안전 상황</p> <p>주변에 학교가 많은 교육, 학군 지역입니다. 생각보다 안전하지만 밤 늦게 돌아다니는 것은 위험합니다. 어떤 길은 노숙자가 많고 어떤 길은 사람이 한명도 없기도 합니다. 학교주변은 안전한 지역에 속하지만 걸어 다니실 때는 호신용으로 페퍼스프레이를 가지고 다니는 것을 추천합니다. 학교 내에서는 경비원들이 매시간 돌아다니며 기숙사를 포함한 모든 곳을 경비합니다.</p>

숙소	<p>학교기숙사( 0 ) 홈스테이 ( ) 외부 숙소( ) 기타( ) 기숙사 이름, 숙소 시설, 분위기, 규칙, 유의사항 등 숙소 전반에 대한 평가</p> <p>모든 교환학생은 Holst Hall을 사용하게 됩니다. 개인방이 있으며 리빙룸과 키친, 화장실은 공용으로 사용합니다. 함께하는 친구들이랑 잘 어울릴 수 있고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기에도 아주 적합합니다. 하지만 방음도 약하고 방끼리 서로 가깝기 때문에 가끔 약을 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냄새가 나기도 합니다.</p> <p>카드키가 없으면 1층에서부터 올라올 수가 없기 때문에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다만 개인 방문은 잠글 수가 없기 때문에 중요한 물품들은 자물쇠로 서랍에 보관하시길 바랍니다.</p>
식사	<p>학교 Meal Plan ( 0 ) 학교식당 개별이용 ( ) 홈스테이 ( ) 외부식당 ( ) 직접 요리 ( 0 ) 기타 ( ) 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p> <p>학교 half밀플랜을 신청하였고 가끔은 요리를 해먹었습니다. 밀플랜을 신청하지 않아도 개인 카드로 사먹을수 있습니다. 다만 밀플랜을 신청하지 않아도 300불을 지불하여야 합니다.</p>
교통	<p>통학방법, 시내교통, 주요도시 이동 관련</p> <p>학교 근처에 전철과 비슷한 메트로가 있지만 낮에도 그 안에서 약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만 이용하였습니다. 대부분 우버를 이용하거나 친구들 차로 이동하였습니다.</p>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 : 원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편도 220만원	(인천 - 미니애폴리스)
Fees	<p>교환학생 파견 시 Tuition의 경우, 양교 협약에 의해 면제가 됩니다. 학교별로 Tuition 이외에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상이한데 본인이 지출한 금액에 대해 상세히 적어주세요.</p> <p>예) University Support Fee, \$3,000</p>	-

보험료	자매대학에서 원하는 보험을 샀는지, 국내에서 해외 여행자 보험을 사갔는지 여부 및 보험 비용을 알려주세요.	개인적으로 유학생 보험을 샀습니다. 학교에서 요구하는 보험은 따로 없습니다.				
숙소	<table border="1"> <tr> <td>Holst Meal Plan</td> <td>US\$1,114.00</td> </tr> <tr> <td>Holst Hall 4 Bedrm</td> <td>US\$3,986.00</td> </tr> </table>	Holst Meal Plan	US\$1,114.00	Holst Hall 4 Bedrm	US\$3,986.00	한학기 비용입니다
Holst Meal Plan	US\$1,114.00					
Holst Hall 4 Bedrm	US\$3,986.00					
식비						
교통비						
책값						
기타1	여행					
기타2						
합계		2500 + @				

## 5. 출국 전 준비사항

파견 전 미리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알았으면 좋았을 사항 중심으로 서술 (분량 자유)

미국은 기다린다고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매우 많습니다. 기다리다가 오히려 본인 책임으로 만들어 버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질문이 있거나 잘 모르겠으면 교수님이나 담당자에게 질문을 하세요. 특히 미국에서 질문하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됩니다.

기숙사 배정 후 룸메이트와 트러블이 있거나 예기치 못한 상황들로 인해 생활 하시는 것에 불편함이 있으면 참지말고 RA(층장)이나 담당자에게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개인적인 방이지만 방 이외에 다른 것은 모두 공유하면서 살아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한 학기이든 두 학기이든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 생활하는 것에 있어서 시간도 느리게 가고 여기 왜 왔지라는 회의감도 들 수 있습니다. 불편하거나 참지 못할 상황이 있을 때 도와줄 수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도움을 청하시길 바랍니다.

이왕 교환학생을 가는 거면 외국인 친구와 친해지는 것을 목표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생각보다 현지 학생들은 우리가 다가가지 않으면 별로 관심이 없어 합니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대화에 익숙해지기 위해 노력하다 보면 여기저기 초대도 해주고 다른 친구들한테도 소개해주는 경우가 다수이기 때문에 그냥 미국 대학을 경험하고 싶어서 방문하는 것이라고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학교를 뽕 뽑겠다는 마음으로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특히 concordia 학교가 교환학생을 위한 활동이나 단체가 없기 때문에 처음에 친구 만들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업이나 학교 행사에서 충분히 좋은 친구들을 만들 수 있고 적극적으로 먼저 다가간다면 재미있는 학교 생활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수업은 학점을 많이 채운 학생이라면 한국에서 들을 수 없는, 경험하기 힘든 수업들을 들어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미국은 이렇게 수업을 하는 구나, 이런 수업도 있구나 색다르게 느껴질 수업들을 경험해보는 것도 교환학생의 묘미라고 생각합니다.

## 6. 본인 소감 및 평가

본인의 경험담, 느낀점,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분량 자유)

첫 학기에 파견되었을 시, 한국인은 저 혼자였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일하고 학교를 대표하는 운동선수로 활동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훈련을 하러 가는 학생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첫 한 두달은 무척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교환학생을 온 목적을 확실히 하고 싶었습니다. 외국인 친구를 많이 만들고 대화를 하면서 프리토킹을 하고싶다는 열망이 강했기에 학생들에게 물어보는 것을 어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친구의 친구들을 소개받고, 친해지면서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수업시간에도 거의 대부분 서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 다가가기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팀플에서 만난 친구, 수업이 매번 겹치는 친구 등, 공통점이 생긴 친구들을 중심으로 먼저 말도 걸고 약속도 잡고 학교 행사도 같이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씩 학교생활이 재미있어졌습니다. 위에서 말했듯이 이 지역이 학군지역이라 주변에 학교들이 많습니다. 친구의 친구가 옆학교에 다니고 서로 소개받으면서 자연스럽게 놀러다니고 여행도 같이 갔습니다. 특히 concordia학교는 거의 매달 방학이 짧게 있기 때문에 여행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친구들이랑 일정을 잘 맞춰서 여행을 다녀오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자연스럽게 영어를 사용하다보니 수업시간에 교수님이 하는 말씀도 친구가 말하는 것처럼 쉽게 들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해하기가 쉬워져서 수업 과제 완성도도 높아졌습니다.

학교도, 친구들도, 수업도 이제 적응이 다 되었나? 싶을 시기에 교환학생 생활도 끝이 납니다. 시간은 정말 무섭게 빠르게 흘러갑니다.

첫 학기는 정말 외롭고 어떻게 8-9개월을 보내야하나 걱정도 많고 중도포기를 하고 돌아가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가을학기에는 수업도 적게 들어서 빈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그 비어 있는 시간을 어떻게 채울까, 뭐하고 시간을 보내지 라는 고민이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현지 친구들에게 저의 걱정들과 고민들을 이야기하면서 대화도 더 많이 하게 되고 그러면서 더욱 친해지고 위로가 많이 되었습니다. 비어 있는 시간을 헛되지 않게 보내기위해 각종 행사도 많이 갔고, 방학때마다 여행도 많이 갔습니다. 가을학기쯤 각 나라의 문화를 소개하는 culture fair에서 혼자 한국을 대표하여 부스를 만들어 소개하기도 하고 겨울에 학교에서 하는 스키리더쉽 캠프도 참여하였습니다. 이처럼 한국을 알리겠다라는 마음도 없지않아 있었지만 더 많은 친구들은 만나기 위해서 참여하였습니다.

모두가 처음은 힘들다는 것을 알기에 저처럼 처음부터 너무 걱정과 겁으로 시작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보다 걱정을 많이 한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말 할 수 있을 정도로 미국에서의 생활이 불안하고 기대를 안 했지만 누구보다 노력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기에 조금의 후회도 남지 않았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잊지 못할 1년을 보냈고 미국에서 만난 좋은 친구들이 생겼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저한테 물어보는 질문이 교환학생 또 가라면 갈거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10번가라면 10번 갈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교환학생이라는 것이 영어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경험해보지 못한 미국에서의 학교생활, 그들의 생각과 문화를 경험하는 것,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을 만나고 각자의 경험을 공유하는 것 이상의 가치를 누리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p>Culture fair – Korea 소개하기</p>	<p>스키 리더십 캠프</p>
	
<p>Football 경기</p>	<p>학교내 연극 공연 보러가기</p>



눈 많이 와서 휴교한 날



친구들한테 한식해주기